



신임원장 인사말

학교소식

- 학술/연구/교류 1
- 수업소개 2
- 교수동정 3
- 교수출간 4
- 석·박사과정 5
-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6

동문소식

- 동창회 7
-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8
-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9
- 동문출간 10

인터뷰

- 정년을 맞이한 황기원 교수 11
- 이임원장 이도원 교수 12

201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 모집안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년 전반기 뉴스레터



	신임원장 인사말	3
학교소식	학술/연구/교류	4
	수업소개	19
	교수동정	21
	교수출간	26
	석·박사 과정	28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4
	동문소식	동창회
	석·박사과정 동문동정	41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44
	동문출간	46
인 터 뷰	정년을 맞이한 황기원 교수	48
	이임원장 이도원 교수	51
	201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 모집안내	54

최막중 신임 원장 인사말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급속한 도시화 현상은 도시계획·설계, 교통, 환경, 조경 등 다양한 도시·환경문제를 탐구하는 우리 환경대학원의 교육·연구활동에 충분한 사회적 수요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토지·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대학원의 노하우가 필요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도시화의 부작용 또는 반대급부로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의 훼손, 교통혼잡, 환경오염, 에너지소비량과 순환자원(폐기물)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는 환경대학원이 앞장서 치유해야 할 시대적 소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더 이상 급속한 도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대학원도 도시·환경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면서 우리 스스로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새로이 창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단적으로 근래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도시·환경문제가 과거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과대학(원)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그에 비례하여 대내·외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대학원도 결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환경대학원 동문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학생들은 선배 동문들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때 미래 그들의 모습을 그리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면 선배 동문들도 환경대학원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교수, 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막중 올림



학교 소식

1

학술/연구/교류

한국-인도네시아 도시 및 지역계획 세미나



지난해 11월 7일 환경대학원에서 서울대와 인도네시아 디포네고로대(UNDIP: Universitas Diponegoro)의 합동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UNDIP의 지역 및 도시개발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Planning studio' 수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례조사를 위해 한국으로 현장답사를 오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두 학교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환경대학원에서는 환경계획학과 김광중 학과장, 최막중 교수, 이영성 교수, 김경민 교수를 비롯하여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UNDIP에서는 Yadi Siswadi 박사, Joesron Alie Syahbana 교수, Jawoto S. S. 교수와 UNDIP의 지역 및 도시개발학과 석사과정 학생 29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도시 및 지역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크게 세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의 이영성 교수와 UNDIP의 Syahbana교수가 각 학교의 도시 및 지역계획 학위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Siswadi 박사가 UNDIP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UNDIP 석사과정 학생은 전원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토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로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의 최막중 교수가 '한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최 교수는 농촌과 도시를 통합하여 새롭게 정립된 한국의 국토도시계획제도와 함께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UNDIP의 학생들은 한국 내 여러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한국의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 세션은 UNDIP Jawoto S.S. 교수의 '인도네시아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국가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국토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평소 생소했던 인도네시아의 공공계획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세미나 종료 이후에는 서로 브로슈어와 기념품을 교환하고 환경대학원의 옥상정원을 투어한 뒤, 함께 다과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합동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인도네시아의 UNDIP 간에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향후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1회 한일 공동 마을숲-사토야마 세미나



2013년 2월 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첫 번째 한일 공동 마을숲-사토야마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이하 UNU-IAS)에서 추진하는 Satoyama Initiative 프로젝트 연구팀이 이도원 교수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이도원 교수가 다시 한국의 '마을숲'과 일본의 '사토야마'에 대한 비교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UNU 부총장 Kazuhiko Takeuchi 교수와 UNU-IAS 소속 박사 3명이 발표자로 참석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도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찬열 박사, 생명의 숲의 장미아 박사와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은주(계획 33회)가 참석하여 각각 사토야마와 마을숲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8명의 발표자, 환경대학원 학생 외에도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생명의 숲 등의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Takeuchi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사토야마(里山)'는 1960년대 산림생태학자인 Tsunahide Shidei 교수에 의해 농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숲을 자칭하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용어이며 이와 함께 '사토야마 경관(里地)'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토야마 주변의 경관 생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다른 발표자인 Kaoru Ichikawa, Wataru Suzuki, Hongyan Gu 박사는 이러한 사토야마 경관의 개념을 현대의 경제적·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일본의 도시화에 따른 사토야마 손실의 문제와 사토야마로 인한 사회·생태학적 이익 등의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사토야마 경관 개념을 지니고 있는 해외의 유사한 경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Satoyama Initiative(이하 IPSI)라는 명칭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이도원 교수가 "마을숲의 유형과 분포"라는 주제로 기초 강의를 하였고, 장미아 박사가 "마을숲의 활용 및 관리"라는 주제로 마을 숲의 역사, 개념,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코넬대의 이은주는 마을 숲 복원 사업을 통한 사회·생태적 회복 가능성(social-ecological resilience)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초 강의를 맡은 이도원 교수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 마을 경관은 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주로 6개의 유형으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전통적 마을숲은 마을 주민에 의해서 소유 및 관리되며, 역사적·문화적·생태보존적 차원에서 특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존하는 마을숲의 분포를 분석해보았을 때 인구수가 중요한 영향인자를 결정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박찬열 박사의 "마을숲과 사토야마 비교 연구" 발표에 이어 논의 시간에는 세미나의 모든 참석자들이 마을숲과 사토야마의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의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8일에는 환경대학원의 이도원 교수, 손용훈 교수,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찬열 박사 외 일행 10명이 일본 연구진과 함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2리에 있는 송말숲을 방문하여 실제 한국의 마을숲과 마을 경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사토야마 연구는 이미 세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지원과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고유한 마을숲과 마을 경관에 대한 연구에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세미나였다.

제17회 교통연구세미나



지난해 9월 21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제17회 교통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관리전공 및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후원하며, 매년 2회씩 개최해왔다. 지난 17회 동안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176편에 달한다. 17회 세미나는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배성일 교통동문회장(취유신 부사장, 계획 14회)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논문 9편이 발표되었다.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조는 "단속교통류의 사고 잦은 구간 선정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구간 배치방법 중 Sliding-window기법을 적용하여 도로 및 교통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구간 배치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경아는 "이동시간의 유용성에 대한 계층간 인식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계층별로 이동시간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1, 2부 주제발표 후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계획 22회),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계획 29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석 박사(계획 24회)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박사과정 오관교의 "혼합로짓모형을 이용한 수단분담모형의 정립 및 통행시간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수도권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상은 석사과정 안수연의 "경험적 베이즈방법을 이용한 사고 잦은 지점 개선효과 평가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소정의 교통동문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임강원 명예교수의 격려사와 이영인 교수의 폐회사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교통관리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은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2학기에는 "도시교통," "항공교통정책의 신구상," "교통물류전략의 뉴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하였으며, 총 3회(제22차~제24차)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제22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지난해 9월 10일 월요일, “**도시교통정책의 신구상**”이라는 주제로 제22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특강을 맡은 이광훈 박사(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와 2명의 토론자(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사회시스템공학과 진장원 교수)를 포함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본 대학원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광훈 박사는 도시개발시대 종식이 가져오는 교통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교통정책의 신구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신구상은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통이 되어야 하며, 공공성, 형평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신구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광훈 박사는 사례 1) 선제적 교통대책수립체계로의 전환, 사례 2) 도시계획·도시설계와 함께하는 교통, 사례 3) 인간이 중심되는 교통운영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기본설계 수립 후 수행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이미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주변도로의 교통개선대책만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또한 사업시행자 홀로 수립하는 교통개선대책으로 주변교통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개발 구상단계에서 교통대책을 검토하는 선제적 교통대책수립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동경의 교통체계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도시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대중교통, 보행 정책이 구현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시설계와 함께하는 교통의 사례(新소도심 창출)를 제시하였다. 버스체계 개편, 도심 버스순환망 구축, 도심 트램 구축,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만들기, 매력적인 역사도심 만들기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공간 창출이 가능하며, 교통체계 개편을 수반한 도심의 집중 정비구역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중심되는 교통운영 방안 제시를 통해 보행자와 안전개선효과를 기대하였다. 이광훈 박사는 더 이상 교통만의 독자학문은 한계가 있으며, 교통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창의적이어야 하고 지금이 교통의 공공성을 재정립해야 할 기회라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발표 후 2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진장원 교수는 현재 교통산업의 축소, 교통인력의 과잉공급 등 교통분야의 위기를 공감하였으며, 교통분야의 미래예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빅데이터의 출현, 인간 중심의 교통, 교통의 융합 등의 미래예측을 통해 교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수 교수는 3가지 심층적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교통분야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통학의 교과과정 및 교육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광훈 박사는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계획이 필요하며 공급보다는 소통이 중시되어야 하고 일률적 관리보다는 맞춤형 관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송민수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은 교통이 독자학문이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며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에 대응해야 하는 교통분야의 변화에 있어 학생들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이광훈 박사와 진장원 교수는 학제간 연구, 창의력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니콜라 지리학과 석사과정은 트램도입방안에 대해 도로위주의 서울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시교통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3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지난해 10월 8일 월요일, “**항공교통정책의 신구상**”이라는 주제로 제23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특강을 맡은 김연명 박사(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기술본부장)와 2명의 토론자(환경대학원 이영인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백호종 교수)를 포함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본 대학원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연명 박사는 장래 항공정책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항공산업, 안전, 공항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역할 증대 등에 의해 항공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선의 경우 KTX개통으로 인해 항공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되기도 하였으나, 국제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항공안전 측면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체계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항공환경 측면에서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항공분야는 글로벌 시대, 저비용항공사 성장 가속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항공교통에 대한 활발한 산업이 발달될 것이며, 개인용 항공기(PAV)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발표자는 항공 관련 세계기구들이 2025년까지 여객 4.2~4.9%, 화물 5.4~6.6%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와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따른 항공정책의 목표설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항공운송, 공항개발 및 운영, 항공안전 및 기술, 국제협력 및 환경으로 구분하여, 통합화·다양화·세계화·효율화·첨단화·융복합화·선도화·지속가능화 등의 Key Words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성장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항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아태 지역 항공자유화의 점진적 확대, 비 항공운송산업 발전기반 마련, U-Airport 구축 및 항공보안 로드맵 수립, 한국형 NextGen 구축을 통한 효율적 공역 활용, 국제 항공운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및 친환경 공항체계 구축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2030 항공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특강을 마무리 하였다.

발표 후 2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백호중 교수는 항공운송 뿐 아니라 안전, 공항 등 항공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예시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의 경우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 다양한 기관과 이해집단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며, 동남권 신공항, 인천공항 민영화 등 최근 항공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질문하였다. 이에 김연명 박사는 항공수요, 경제성, 지역균형개발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분매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영인 교수는 인천공항과 KTX교통망을 이용하는 Hub-and-Spoke로의 접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국대학교 김용정 교수는 항공사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Hub-and-Spoke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동북아-태평양의 잠재수요로 인해 Hub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민영화 논의와 관련해서 지방 적자 공항에 대한 민영화는 필요하나 인천공항의 경우 국가경쟁력 산업으로서 개발해야하므로 정부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천공항의 경우 이착륙료가 경쟁공항에 비해 유리하지 않으며 민영화가 될 경우 이윤추구가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비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니콜라 지리학과 석사과정은 통일이후 육로(도로, 철도)의 활성화가 예상되는데, 항공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연명 박사는 여객측면에서는 중장거리에 유리한 항공이 우세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화물측면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철도가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24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지난해 11월 21일 수요일, **“교통물류전략의 뉴비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물류인프라 통합 개발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4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특강을 맡은 임영태 박사(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와 2명의 토론자(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문대섭 융복합연구단장,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홍다희 부연구위원)를 포함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본 대학원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영태 박사는 수도권의 비전과 교통물류인프라의 역할을 정의하고 수도권의 현황을 분석한 후 외국사례검토를 통한 교통물류인프라의 확충방향 및 전략별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수도권 관계계획에서는 수도권의 비전으로 ‘글로벌 도시권(비즈니스 허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발전목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영태 박사는 교통물류인프라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하였으며 각 발전목표별 교통물류인프라의 역할을 세분하여 정의하였다. 이어 수도권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물류시설 등의 인프라 현황을 검토하고 장래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교통물류인프라 과제를 제안하였다. 종합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경쟁력의 선행적 강화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Supply chain 최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물류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유도를 위한 교통물류인프라의 골격 정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황검토,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도권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의 기본방향을 1)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인프라 확충, 2)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광역인프라 확충, 3)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역인프라 확충, 4) 물리적 확충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운용 효율화 도모, 5) 수도권 광역인프라의 체계적 확충·관리를 위한 체제 정비로 설정하고 필요시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발표 후 2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홍다희 박사는 공간계획단위에서의 교통물류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한 접근이었으며, 물류거점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관련하여 복합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민간 물류시설의 연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실제 화주의 need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문대섭 박사 역시 복합수송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전망,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시설의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과 도시계획간의 통합 고려를 통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SOC사업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기술혁신, 운영방안 등의 개선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준 박사과정은 환경측면에서의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채일권 박사과정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나누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환경생태학 연구실의 연구활동

이도원 교수 연구팀(환경계획학과)은 올해 2월 14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생태학회에서 서식지 특징과 경관 구조 등이 서울시와 주변 도시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군집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하였다.

- 강완모, 박찬열, 이도원, “서식지와 경관 변수, 인간간섭이 도시 산림성 조류 군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태학회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2013)
- 이경민, 강완모, 박찬열, 이도원, “도시녹지특성과 경관구조가 딱따구리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태학회 정기학술 대회 초록집 (2013)

연구결과는 도시숲에서 서식하는 조류종 보전과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관 관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AECOM 이호영 조경가 '조경설계기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과 졸업생이자 AECOM 소속 이호영 조경가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특강은 이호영 조경가가 서안과 AECOM에서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경설계 중간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경설계에 있어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의했다. 이호영 조경가는 설계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컨셉에서 하나의 완전한 계획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조경가가 설명한 디자인 프로세스 중 Diagram-Masterplan이란 디자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다이어그램화하고 이 다이어그램들을 오버레이하는 방법이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계획안으로 갈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 중 그가 찾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영 조경가는 디자인 과정에서 다이어그램화 하는 분석요소들로 Making Space, Planting Design, Ornament Design, Circulation, Paving Design, Sustainability, Topography를 꼽았으며, 설계는 단순히 추상적인 그림에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과정을 통해 그려진 설득력 있는 그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다이어그램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했던 성공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말한 ‘조경설계 중간이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또한 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알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에서 실무를 했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환경대학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특강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동경대 시모무라 아키오 교수 '풍경 속 마을생활'

환경조경학과에서는 9월18일(화) 일본 동경대학교대학원 농학생명과학 연구와 시모무라 아키오(下村彰男)교수를 모시고 '풍경 속 마을생활'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연회는 시모무라 교수가 9월 17일(월) 수원시에서 열린 '마을르네상스 한국-대만-일본 3국 국제포럼'에 초빙되어 방한한 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우리 대학원을 방문해 주며 이루어졌다. 특강 내용은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풍경을 어떻게 정비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사고방식과 최근 경관 만들기에 관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모무라 교수는 일본에서 경관선호의 변화 동향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사람들이 탐승(探勝)의 대상으로 원생자연과 같은 경관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의 삶의 문화가 담긴 생활경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경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예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경관사업보다는 마을의 개성이나 사람들의 생활을 구현(具顯)하는 생활문화경관을 잘 가꾸는 경관사업을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최근 일본에서는 경관에 관한 법제도(경관법, 문화재보호법 개정, 에코투어리즘 추진법, 역사마을만들기법)도 함께 재정비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지역환경과의 소통 부재를 언급하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토지'와의 양호한 상호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결국 지역경관에 개성을 가져다주는 방법이라 하였다. 즉 사람과 지역환경과의 소통 회복을 통하여 마을경관, 가로경관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주민과 지역환경과의 소통이 잘 보전되어 개성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례로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長崎県島原市)와 시가현 오미하치만시(滋賀県近江八幡)를 들었다. 전자의 마을경관은 생활용수를 위한 수로, 후자의 마을경관은 배의 교통을 위한 수로로 같은 수로경관을 갖지만 생활 속에 쓰인 목적이 다른 만큼 전혀 다른 경관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강연의 마지막에는 최근 동일본지진 피해지역 사례를 보여주며 제방설치 등의 방재기술을 과신하고 이에 너무 의지하는 것은 풍토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둔감하게 하므로 큰 재난이 올 때 매우 위험하고, 따라서 자연재난에 적응하는 차원에서도 지역환경과 소통을 회복하는 형태의 경관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모무라 교수의 강연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외현(外現)의 장식에만 치중하기 쉬운 경관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미국 코넬대학교 Tim Mount 교수



환경경제학 분야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인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교수 Tim Mount의 특강, "The System Benefits of Distributed Storage in Electricity Markets with High Penetrations of Wind Generation"이 1월 15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교내 환경관리 전공, 농경제학과 학생 및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Tim Mount 교수는 계량경제모형, 연료와 전기의 사용에 관한 정책 분석 및 환경 영향(산성비, 스모그,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중 풍력발전이 전력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력 발전 네트워크에 저장용량의 추가가 풍력발전의 변동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분산 저장시스템이 전력 발전 네트워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단위 부하도 편명하게 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고 뉴욕시를 상대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하였다. 이 실증분석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전력 네트워크 절감, SCOPF(Security Constrained Optimal Power Flow), 다기간, 통계적 추측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분산 저장시스템으로 두 가지 종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하나는 풍력단지에 같이 결합된 형태로 전력설비 규모(utility-scale)이고, 다른 하나는 부하조절센터에 위치하여 유예가능한 수요(deferrable demand)와 동일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의 전력 시장,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인 Tim Mount 교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전력난이 더 심각한 한국의 상황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리고 전기소비가 큰 제철,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큰 구조적 특징이 있지만, 한국의 전력 시장에서도 풍력, 태양광 열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원 교수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출간기념 특별 강연회



『한국의 전통생태학』 제 3권에 해당하는 『전통생태와 풍수지리』가 지난 2012년 11월 30일 출간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출간기념 저자 특별 강연회가 광화문 교보문고 본점에서 12월 8일 오전에 있었으며, 이번 특별 강연회는 주 저자 4인(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윤홍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 최원석 경상대 인문한국 교수)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도원 교수와 윤홍기 교수의 강연회로 진행되었다. 전통생태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부터 아빠 손을 잡고 서점에 들른 초등학생, 저자들의 지인까지 다양한 청중 약 80여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전통생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의 진행으로 강연회가 시작되었다.

박수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이도원 교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이번에 출판되는 『전통생태와 풍수지리』에 물과 연결시켜, 이를 다시 풍수로 접근하는 것을 시도 - 특히 풍수 이론 중 곡류 선호, 화산과 화마 이야기, 마을 연못, 경계 관리, 유역 단위 토지 이용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저자가 직접 준비한 질문 '무엇이 우리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첫째, 뜻밖의 충격 또는 교란(disturbance, shock, or surprise), 둘째로, 계의 취약성 (vulnera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제한자원(vital and limiting resources)을 꼽았다. 책 속에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저자의 전통적 해석과 더불어 실제 답사를 다니면서 찍은 곳곳의 말라버린 우물들의 사진이 실려 있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통생태와 풍수지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현재의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문제점들을 상기시키는 뜻 깊은 자리였다. 또한 평소 저자가 즐기는 다산 정약용의 글과 '봄비는 쌀 비다', '봄비가 많이 오면 아낙네 손이 커진다', '소나무 새순이 길게 자라면 풍년 든다' 등의 속담을 인용하여 우리의 전통 생태를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유역기반토지이용의 사례를 소개할 때 이슬을 받아주는 뒷산의 역할에 대한 저자의 설명과 이에 관련된 사진들은 사람들로 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과 만세는 곧 같은 말이라며 한국의 전통생태 안에 녹아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혜로움과 만세 정신을 강조하며 강연의 끝을 맺었다.



다음으로는 풍수에 대한 연구로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홍기 교수의 강연을 최원석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윤 교수는 풍수를 믿는다고보다 객관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풍수를 모르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풍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작에서 저자가 직접 고안한 '지오멘탈리티,' 즉 땅을 보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일본의 정원, 한국의 정원을 비교하면서 자연에 울타리 하나만 치는 한국의 옛 정원에서 땅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풍수는 보수적인 사회의 풍토 때문에 개발과 성장에 반기를 들며, 평행성(equilibrium)이 형성되면 건드리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말했다. 특히 "빈터는 빈터가 아니고 사람의 땅에 대한 마음의 틀"이라 설명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저자들의 풍수에 대한 생태적인 연구는 조만간 영문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미 교수 조경작품 전시회 “3景” 3인전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지난해 10월 30일~11월 5일 서울대학교 220동 1층 우석홀에서 “3景”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김준현(前 환경조경학과 강사), 박미에 작가와 함께 한 이번 전시는 공공 경관 프로젝트의 언어와 형식을 벗어나 각자의 시각적 화법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석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회는 '경관'에서 작품의 영감을 찾는 미술작가를 꿈꾸던 입장에서 직접 경관을 만들고 평하는 사람이 된 이들이 조경, 건축과 미술의 경계에서 얻은 영감을 작품전시를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유미 교수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여행하면서 접하게 된 다양한 자연경관을 소재로 파노라마 사진을 제작하였는데, 경관에 숨겨진 색을 추출해 바코드를 만들고 또 다른 경관의 색의 바코드를 조합하여 새로운 경관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바코드화 된 색상 스펙트럼에서 추출하여 새롭게 조합된 경관 'Composit Landscape'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관이지만 때로는 익숙하게, 때로는 낯설게 혼합되어 있다. 전시기법은 색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된 경관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은 실제 연구에 있어서 지역고유의 경관에서 색상을 추출하는 기법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준현은 어린 시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해외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미디어 속 풍경을 드로잉으로 재현하였고, 박미에는 수학적 연산으로 크기와 위치가 결정된 개체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물 작업을 선보였다. 3인 3색의 경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 이번 전시는 조경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설계아이디어 발전과정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시'라는 방법의 자유로움을 통해 디자이너의 역량과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도면 드로잉의 수법이 아닌 동영상, 구조체등의 다양한 전시물들을 통해 경관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들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전시였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제학술 활동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학술활동에 대한 학교의 일부 비용 지원에 힘입어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및 연구논의가 점차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의 사례가 세계 학계의 지식축적 과정에 보다 빈번하게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김고운**(석사졸업)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2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The 10th East Asian STS Conference에 참가하여 "A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education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citizenship"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일반 시민이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함을 강조하는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 중국, 일본의 의무교육과정에서 핵에너지와 같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술이 미래의 의사결정권자들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중학교 과학과 및 사회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하였을 때, 일본이 세 국가 중 가장 높은 빈도로 핵에너지를 언급하며 장단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혁명의 대표 사례로서 핵에너지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나열하는 정도로만 교육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의 권위주의적 담론이 의무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관리전공 **김고운**(석사졸업)과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2년 11월 중국 양링에서 개최된 2012 Yangling International Agri-Science Forum의 Traditional Forest-related Knowledge (TFRK) 분과에서 "Korean Proverbs and Traditional Forest-related Knowledg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속담이 한 민족의 사상, 미신, 풍속 등의 민속학적 바탕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에 주목하여 속담을 통한 전통생태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한국의 속담 중 나무와 숲과 관련된 속담들을 총 166개 수집하여 첫째로 속담 속 소재로서의 나무 수종별, 둘째로 속담의 기능별로 분류를 하여 그 속에 나타난 특징을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소나무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속담 속 수종으로, 이를 통해 한민족 속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생태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소개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속담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조선시대의 금송정책 및 경상북도 안동 하회 마을 근처의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식생 완충대 사례 등과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나무와 관련된 풍습을 암시하는 기능을 지닌 속담을 통해 마을숲 문화의 면모를 엿볼 수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속담은 전통생태지식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속담에 반영된 전통적 생태관련 지식과 지혜는 잔류 경과 속 사례들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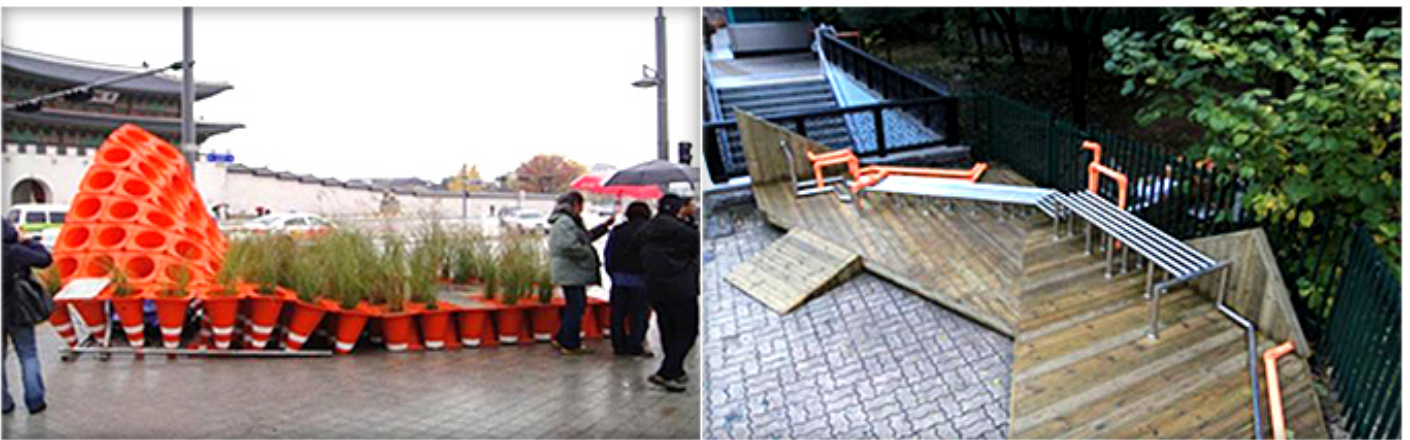
환경조경학과 협동과정조경학 **정승규**(박사과정)는 2012년 11월 27일~29일 호주 Perth에서 개최된 SERA(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Australasia)에 참가하였다. **박종화** 교수(환경조경학과)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Riparian wildlife habitat mapping with LiDAR and high resolution imager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현재 4대강으로 인해서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서식환경으로 하는 생물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 각 목표종별로 고려해야 될 환경조건이 다르고, 성공적인 하천의 복원을 위해서는 하천의 지형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원격탐사를 이용한 지형학적 변화 및 서식지 유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적합성 모델 또는 하천개선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 본 발표에서는 수직적인 정보를 포함한 LiDAR자료와 고해상도 영상에 기초한 OOC(Object Oriented Classif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수달, 고라니, 어류의 서식지 선호요소를 분류하고 정확도를 평가해서 수변생물의 서식지 유형화에 분류 방법 및 서식지 모델링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

도로교통공단 논문공모전 수상

교통관리전공 이상조·이진걸(석사과정)은 2012년 4월 9일~10월 31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 "단속교통류의 사고 잦은 구간 길이 선정방안 및 개선대안 우선순위 설정방안 연구"를 제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별하는 기법 중 Sliding Window 기법을 활용하여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Sliding window length를 단속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대물피해환산법(EPDO)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한 심각도를 구하고 이에 따라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사고유형에 맞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의자설치 프로젝트 우수작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72시간동안 주최한 'Take Urban in 72 Hour' 프로젝트의 우수작으로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혜령(박사과정), 유승종 강사가 참여한 '라이브 스토리(Livestory)팀'과 염인석(박사과정)이 참여한 '모두가 꿈꾸는 의자'팀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Take Urban in 72 Hour'는 '의자를 설치하라!'는 주제로 72시간동안 설계 및 시공을 통해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이다. 도심 속의 자투리공간이란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완충시켜주는 전이공간이자 매개역할의 장소로서 또 하나의 영역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프로젝트의 대상지인 행당역 3,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자투리땅은 의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곳으로 다른 곳보다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가 높은 곳이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부지였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라이브스토리(Livestory)팀'의 작품명은 "감각대화 복합체 복실이"로 위험지역이나 출입금지 구역에서 사용되어 불가피하게 소통을 막는 역할을 해 온 러버콘 200여개를 엮어 만든 의자이다. 또한 러버콘 하나하나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낙서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의자에 담겨지도록 했다. '모두가 꿈꾸는 의자'팀의 작품명은 "CHAir"로 조합(Combination)과 화합(Harmony)이 있는 분위기(Air)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도시 하부 구조를 대표하는 지하철과 배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도시 하부시설을 튜브와 파이프로 시각화하여 의자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하여 구조와 기능을 확보하였고 심미적인 조형물로는 옐로우색 소방PVC파이프를 사용하여 상징성을 높였다. 대상지 후면 공간의 펜스는 자석을 이용한 부착형 도심형 심지 화분을 이용하여 단절되어 있는 펜스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켰다.

2012 SA 인터스튜디오 우수연구사례상 수상



2012년 12월 18일 과천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열린 2012 SA인터스튜디오 전시회 "전원도시 과천, 지속 가능한 비전을 그리다"에서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를 튜터로 하고 임현준, 박준성(환경조경학과)학생이 10명의 도시설계 협동과정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던 도시설계 스튜디오 2는 조경도시계획분야 우수연구사례상을 수상하였다. 2012 SA인터스튜디오는 '전원도시' 과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과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수도권 대학 및 대학원의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전문 튜터와 학생들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100개가 넘는 아이디어와 1,000장의 많은 그림을 통해서 다각화된 시선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환경조경학과 팀은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잘 수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적 경관'이라는 스튜디오의 전체적인 콘셉트하에 기존의 과천이 가지고 있는 개발방향에 대한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사전조사와 답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에 대한 미래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경계를 확장하려는 과천시의 제안을 흡수하면서도 현 과천도심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현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전원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앞으로도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족적, 지속 가능적 요소들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제3회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설계공모전 수상



지난해 12월 20일 대치동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이하 신진조경가 공모전) 시상식에서 환경조경학과 학생 2팀이 가작을 수상하였다. 이번 신진조경가 공모전은 20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현재 여건 및 시민들의 의식과 부합하지 않는 294만m²의 광주중앙근린공원의 기존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고 공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위한 신진 조경가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설계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스리나드(박사과정), 환경조경학과 이제이, 이연선(석사과정)의 작품 “Weaving Natures”는 대상지에 현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세 가지(Wilderness, Agro fields, Public Realm)로 분류하고 대상지의 지형을 포함한 여러 자연 요소와 농경지를 디자인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 요소로 보았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공간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위계의 출입구, 광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물리적 요소를 관입시킴으로써 독특하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광주중앙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김민경(석사과정), 강영식(비은드), 강병현(CA조경)의 작품 “병풍 속으로 들어가다”는 광주중앙공원의 기존 지형인 고개와 산, 호수가 가진 풍경의 한국적 아름다움을 설계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닫혀 있던 병풍을 펼치듯 광주중앙공원 지형의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자연을 광주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수목화처럼 간소해보이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곡선을 통하여 무한한 프로그램을 담고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구현하였다. ‘자연을 되찾다(훼손된 산림복구)-자연 속을 거닐다(단절된 공간연계)-자연에 둘러싸이다(자연이 충만한 공간 형성)’의 세 단계의 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계획 하였으며, 토양-빛-물의 순환을 통한 자연에너지 극대화, 다양한 입구를 통한 공원의 경계 허물기, 패밀리팜 도입을 통한 도시경작시스템 설계를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이번 신진조경가 공모전은 특히 전문가와 시민의 심사 및 토론을 통한 앞으로의 공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였으며 과다한 시설 위주로 구성된 기존 공원 계획을 벗어나 대상지의 양호한 기존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공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젊은 조경가들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수업소개

‘수업소개’는 대학원 내 전공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동문들에게는 학교의 교육내용과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강의를 소개한다. 환경대학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학제간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면서, 이를 전공과 교수진의 구성 및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다른 전공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환경계획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환경계획·설계’과목을 소개한다.

환경계획·설계

“환경계획·설계”과목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이 필수 과목으로 매년 1학기에 개설되고 있다. 환경대학원의 다학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양학과의 전반적인 소개와 도시문제의 융합적 접근과 분야간 소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목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하나는 환경문제의 범주와 문제를 소개하기 위한 강의로서, 환경대학원내 모든 교수들이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매주 옴니버스 식으로 총 15주간 강의를 진행한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이다. 환경대학원내 양 학과의 모든 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매년 주어진 대상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012년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공간읽기 방식을 통해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대안적 사고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업은 환경조경학과 학과장인 조경진 교수와 환경계획학과 학과장인 김광중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지난해에는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인천시 전문가들의 특강과 현장 답사도 진행되었다. 인천시청 경관디자인팀 정두용 박사에 의해 “인천의 도시경관 디자인과 과제”라는 주제로 환경대학원에서 특강이 마련되었으며, 인천시 답사에서는 김용하 박사(인천발전연구원)가 “인천 도시의 발전과 변화”라는 주제로 송도 인천도시계획전시관에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후 송도와 인천개항장 일대, 월미도와 공장지역 등의 답사를 통하여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총 87명의 학생들은 전공간의 융합을 통해 종합적 사고능력과 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과목 취지에 맞게 각 전공으로 고르게 분배되어 12개조로 나뉘어 팀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조는 배정된 지도교수의 지도아래서 주제를 논의하고 현장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최종성과물을 작성하였다. 연구주제발표, 중간발표를 거쳐 학기말에는 본 대학원의 교수들과 인천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별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최종발표는 교수들과 학생의 심사 평가를 통해 3개의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최우수상은 강화도의 폐교를 주거 및 복합 문화 복지공간으로 제안한 5조의 “Comedy School”(박유진, 이경민, 윤영원, 이석준, 최성지, 안근철, 윤선영/ 지도: 이희연 교수)에게 주어졌다. Comedy School 이란 “Co-housing+remedy+School”의 합성어로 폐교를 고령인구의 공동 정주공간으로 창출하여 식사, 의료혜택 등을 집약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동 복지 주택의 개념을 의미한다. 실현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바로 적용가능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월미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가능성을 제안한 9조의 “관광지로서 월미도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김정아, 이영희, 이지선, 정문학, 이윤주, 성혜승, 한선규/ 지도: 손용훈 교수) 장려상은 산업화로 훼손된 해안선으로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한 7조의 “해안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 적지 분석 및 디자인”(석주영, 강정훈, 이진걸, 전해영, 이 슌, 민경찬, 허운서)이 수상하였다. 그 외 “개항장 문화지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수면 상승을 대비한 계획안,” “송도신도시 활성화 방안,” “송의 경기장 주변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다. 시상식은 환경대학원 1층 홀에서 양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와 함께 진행되어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교수동정

신임교수 부임

김세훈 교수가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분야 신임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김세훈 교수는 2013년 1학기부터 환경조경학과와 도시설계 협동과정에서 '도시재생스튜디오', '현대도시설계론', '도시설계세미나'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김세훈 교수는 국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4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친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디자인대학원(GSD)에 진학하여 도시연구석사(MDesS)를 취득하고, 중국 양쯔델타지역의 도시확장과 환경자원 손실에 대한 연구로 2012년 박사학위(Doctor of Design)를 받았다. 미국 체류기간 중에는 보스턴재개발공사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시설계팀에서 실무활동을 수행하였고, 2009년 이후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펠로우로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화', '동아시아 도시의 형성과 형태분석', '청계천복원 평가',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강의하였다. 최근에는 도시의 여러 특성과 확장 패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 (2012), 마스터플랜과 도시개발 (2013), 청계천 복원의 도시적 의미 (2011) 등에 대한 연구를 논문과 책으로 출판했고, 현재 하버드 GSD 연구진과 도시확장의 정량적 분석론에 대한 책을 공동집필 중이다. 김세훈 교수는 향후 중국과 아시아의 도시설계, 개발, 사회-환경자원 활용, 노후화된 인프라 재개발과 복원, 생산인구 감소와 도시재생, 도시공간분석과 데이터 매핑, 도시적 다양성 등의 주제로 연구활동을 할 계획이다. 실무와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최고의 도시정책결정자, 도시건축가, 혹은 환경생태이론가로 성장할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설계자의 "손"과 과학자의 "마인드", 그리고 정책가의 "결단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해 환경대학원 졸업생들이 보다 더 넓은 무대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생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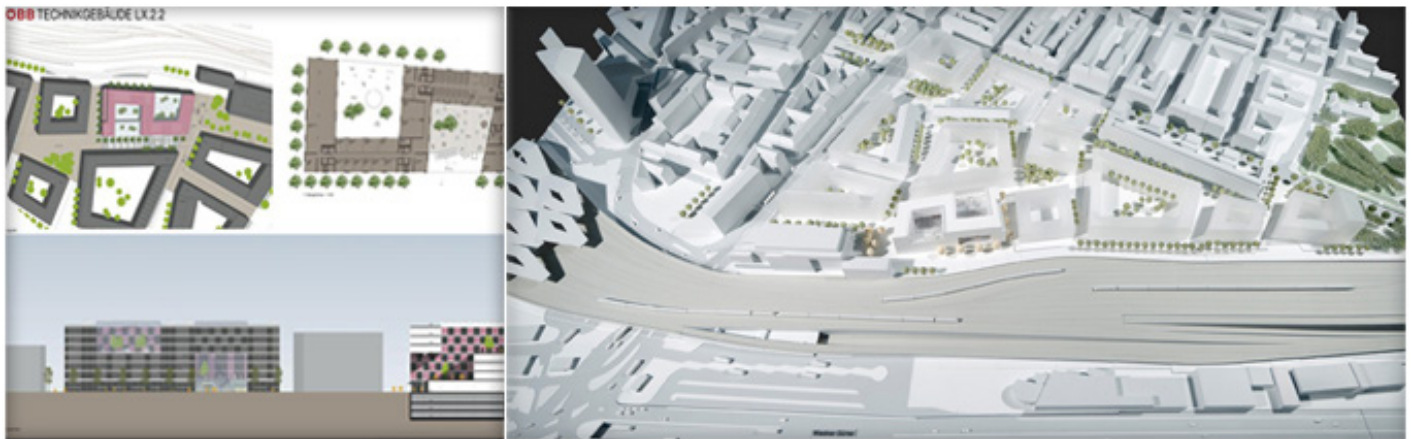
인사

- 2013년 2월 2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최막중교수가 환경대학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 2013년 3월 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전상인교수가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였다.
- 2013년 3월 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윤순진교수가 환경계획학과장에 취임하였다.
- 2013년 3월 1일부로 환경조경학과 성종상교수가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3년 3월 1일부로 환경계획학과 김경민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3년 3월 1일부로 환경조경학과 손용훈교수가 협동과정조경학 주임교수에 취임하였다.

수상

양병이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조경의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12월 26일 개최된 한국조경40주년 기념식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철도청이 주최한 현상설계에 1등 당선을 하였다. 설계대상지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남쪽역사(Suedbahnhof) 서쪽 철도부지로서, 이번 건축현상설계는 2010년의 도시설계경기에 이어 첫 번째로 건설될 블록에 관한 건축현상 설계였다. 이석정 교수는 2010년 도시설계경기에 참가하여 입선했기 때문에 현상설계에 초대되었다. 이 건축현상설계에는 모두 10개의 유럽 사무실이 초대되었으며, 주요 용도는 철도청 사무실 및 기계실로 사용될 블록이다. 설계의 개념은 도시설계현상 결과인 중정형 블록을 지키되, 'ㄱ'형 빌딩매스를 선택하여 주변의 다른 블록과 차별화 시키고, 건물 내부의 작업환경 및 경관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또한 두개의 서로 다른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무동 매스 중간에 '어반 윈도우'라는 개념의 보이드 공간을 두어 기존 도시와의 시각적 소통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칫하면 지루한 사무소 건물의 입면에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건물매스의 구성은, 철로변의 소음에 대응을 하면서도 다른 도시공간과의 물리적 시각적 소통을 꾀하는 차원에 나온 결과이다. 그 밖에 중정의 지붕 및 건물외관의 디자인에 있어 에너지 절약이 중요시 되었다. 또한 1층은 거의 기계실로 사용되어야 하는 건물용도의 특성상, 건물의 현관을 2층 중정에 계획함으로써 현관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중정전체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계요강에 따라 건설회사와 함께 참가해야했던 현상설계로서 슈트트가르트의 Plan Forward GmbH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1등 당선과 함께 실시설계권과 건설권을 갖게 되어, 2013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했다.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다수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지난해 11월 8일에는 한중미래숲 주관 '에코피플 토크콘서트'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나무를 심으며"란 대중강의를 하였으며, 13일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성과 전통생태지식"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또한 30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주최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 숲 관리 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올해에는 1월 23일, 한국응용생태공학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통생태에서 찾은 생태공학"을 주제로 심포지엄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2월 27일에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 4명씩, 총 8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마을숲과 사토야마를 비교하는 한일공동세미나 '2013 Joint Seminar on Maeulsoop and Satoyama Studies'를 개최하고 장래의 공동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이 교수는 "Introduction to maeulsoop: Types and ecological and cultural functions"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학술활동으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회 국제산림전통지식 학술대회에서 지도학생 그리고 연구 동료와 함께 아래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im, G. and D. Lee. (2012). Traditional forest-related knowledge in Korean Proverbs. *A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itional Forest-Related Knowledge and Culture in Asia*. Xian, China. 4-9.

Park, C.-R., D. Lee, and J.H. Oh. (2012). Ecological roles of Korean people for sustainable use of acorns..*A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otopma; Forest-Related Knowledge and Culture in Asia*. pp.177-178 Xian, China. 4-9.

이밖에 출간소식도 있는데, 11월 30일에는 박수진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윤희기 교수(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최원석 교수(경상대학교 인문한국)과 함께 『전통생태와 풍수지리』를 출간하고, 12월 8일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아카데미에서 "천년만년 살고지고"라는 제목으로 출간기념 저자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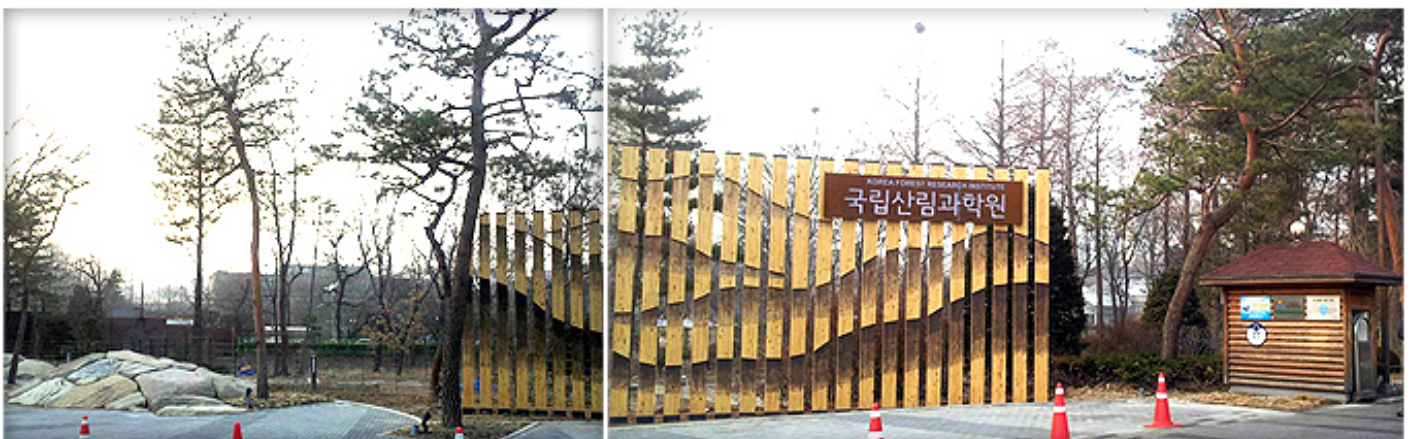
또한 이도원 교수가 엮고 환경대학원 성종상, 윤순진 교수 등 21명이 공동저자가 참여한 『한국의 전통생태학: 생태학은 옛 사람의 삶 안에 있었다』(사이언스북스, 2004)이 한국문학번역원의 2012년도 4분기 번역지원사업 영어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전통생태학』 1권과 2권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대상도서로 2010년부터 선정되어왔으나 번역 지원자가 없어 지원을 못해오다 이도원 교수가 영어에 익숙하고 한국의 전통생태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관심이 있는 몇몇 학생들을 격려하여 환경관리 전공의 졸업생인 이아람, 이보미, 재학생 김고운(박사 1학기), 신희영(석사 4학기), 그리고 졸업생의 배필인 Rahul T. Vaswani씨와 함께 협력하여 번역 지원에 응모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응모한 샘플 번역은 2012년도 4분기 인문·사회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번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홈페이지(www.klti.or.kr)에 공지된 번역평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고 가독성도 높은 데다 번역문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특히 한시를 영역한 부분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적절한 어휘가 돋보인다는 평"을 심사위원들에게 받았다. 번역 작업은 올해 12월 초까지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용산공원조성사업 총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문제" 편집위원을 맡았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출간 소식도 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과 공동편집한 『강과 한국인의 삶』(나남, 2012)에서 "강 그리고 도시의 삶과 문화"를 게재하였다. 『한국사회의 문화풍경』(그린, 2013)에서는 "편의점으로 읽는 도시인의 삶과 문화"를 집필하였다. 공저한 『한국현대사』(세종연구원, 2013)에서는 "공간과 일상의 한국현대사"를 집필하였으며, 끝으로 『박태준사상, 미래를 열다』(아시아, 2012)에서는 "박태준 영웅론: 제철입국의 근대 정치사상"을 게재하였다.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2년 10월 10~12일에 걸쳐 미국 Minneapolis에서 개최된 35차 *Applied Geography Conference*에 참석하여 주유형(박사과정 수료)과 함께 "Impact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Standardized Mortality Rates in Seoul Mega City Region"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응용지리학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분야들은 'Sustainability and Natural Resources', 'Geography of Health', 'Retail Application in Business Geography', 'Urban Geography: Housing & Segregation'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특히 각 나라들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2012년 11월 1~4일에 걸쳐 미국 Cincinnati에서 개최된 53차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ACSP)*에서 진장익(박사과정 수료, Univ. of Wisconsin)과 공동연구한 "An Analysi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based on the Utility of Housing Consumption- A Case Study of Suwon, Korea"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학회는 매년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부하는 선·후배들의 만남의 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학회에서 다루어진 분야들을 보면 Environmental Planning & Resource Management, Gender and Diversity in Planning,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Land Use Policy & Governance, Planning and Human Health, Planning History, Planning Theory, Regional Planning, Transportation & Infrastructure Planning, Urban Design 등으로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3월부터 1년간 연구년을 갖는다. 전반기에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후반기에는 동아시아에서 도시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담당과목의 수업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다.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대한민국신진조경가대상 설계공모전을 총괄 기획하고 개최 운영하였다. 한국조경설계연구회 주관으로 올해 제 3회를 맞이한 동 공모전은 한국 조경계 내외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젊고 유망한 신진 조경가를 발굴, 육성하여 보다 나은 조경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8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75일간 광주광역시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하며 광주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재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가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출품작품들은 조경뿐만 아니라 건축,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한 심사와 광주시민대표 100인의 심사라는 2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공원에 걸린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반영하면서 공원 미래상에 대한 시민참여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광주시민대표 100인 심사는 전문가심사로 선정된 우수상 이상 6개 작품 제출자들이 직접 심사장에서 자신들의 안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설계가)가 소비자(시민)를 직접 만나 자신의 상품(설계안)을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2월 20일에는 당선자들의 작품 설명과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감, 기성조경설계가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 수상식 및 조경설계포럼을 개최하여 새로 등단한 신진조경가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하였다.



또한 성종상 교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문 및 주변 조형물을 설계하고 시공 감리하였다. 올해 설립 90주년을 맞이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문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개선함으로써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체성과 식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기획, 추진되었다. 성교수는 이를 위하여 한국적 국토경관을 표상하여 "한국의 산에 대한 오마주"를 설계개념으로 잡고 만산조형문주와 돌외조형물, 그리고 산그늘 못 등을 구상하여 설계하여 시공감리까지 수행하였다. 이들 조형물과 공간들은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새로운 얼굴로서 정체성과 심미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도시 내 빗물순환과 미기후 조절이라는 다목적 환경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2년 10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도시를 바꾸는 18분의 기적' TEDxCity 2.0에서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 도시의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걷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도시환경 조성을 중요성을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행사는 도시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기획 의도로 전 세계 70개 도시에서 동시에 행사가 개최되었다. 시카고, 베이징, 시드니, 뭄바이 등 세계 각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9명의 연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서울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한편 조경진 교수는 2013년 1월부터 서울시 공공조경가 그룹 부위원장이자 공원혁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원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일을 총괄진행하고 있다.

Wybe Kuitert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연구년 중에 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기고하였고, 3편의 논문이 2013년 봄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될 논문은 1)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에 실릴 "Composition of scenery in Japanese pre-modern gardens and the three distances of Guo Xi"; 2)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에 실릴 "Urban landscape systems understood by geo-history map overlay"; 3)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에 실릴 "The nature of urban Seoul - Potential vegetation derived from the soil map"이다.



김기호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는 지난해 11월 29일 환경TV에서 환경 특집기획으로 제작한 2부작 "대한민국 녹색미래를 연다." 프로그램에 출연 하였다. 1부 '녹색도시, 상해에서 배운다.' 에 출연한 김기호 명예교수는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태적 복원을 통하여 새로운 그린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린웨이를 우리 도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시도하고 있는 선구적인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다. 도심 속에 들어찬 빌딩들, 나날이 개발되는 도심과 농촌, 지구의 허파로 기능하는 숲의 개발이 마구 일어나는 현 시대의 상황에서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방법으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제안해 온 김기호 명예교수는 단절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선형으로 이루어진 연속된 녹색공간을 형성하는 '공원 그린웨이'아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의 푸른 혈관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최명철 공동주임교수(고위정책과정)는 올해부터 서울시 중구청 미래포럼의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한남뉴타운 총괄계획가 (MP)의 연고로 용산구청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최명철 공동주임교수의 건축설계사무소 단우건축이 2010년 설계경기에 당선되어 설계한 서울대학교 내 38동 '글로벌공학연구센터' (연면적 5,000평, 지상 6층, 지하 2층, 39동 건축학과 옆 입구에 위치)가 준공되었다.

교수출간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는 전통생태 발표 모임의 세 번째 출간물 『**전통생태와 풍수지리-소통의 지혜, 지속가능성의 열쇠**』를 3명의 참여자와 함께 출간했다. 이 책은 전통생태 모임에서 소개된 주제 중에서 풍수원리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4 꼭지(마당)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첫째마당에서는 전통마을에 들어 있는 풍수원리를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둘째마당에서는 지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는 선조들의 토양관리 방법에 들어 있는 현대적 의미를 소개하고,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한 지형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풍수적 지형 인식을 설명한다. 셋째마당에서는 풍수지리의 핵심 개념인 생기를 환경순환이론과 연결하여 지역 환경의 안정성과 한계 의식을 살펴보았다. 넷째마당에서는 전통마을의 풍수-비보사상이 마을 주민들의 환경적응 및 관리방식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방법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발제와 논의 형식으로 진행된 모임의 내용을 녹취하여 대화 형식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통생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 책은 미신적 요소가 강한 풍수원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적·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지속가능성의 해법을 논의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생태계의 위기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옛 선조들의 전통지식 안에 깃들여 있는 지속가능성의 지혜를 상기시켜 준다.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이도원, 박수진, 윤희기, 최원석 지음/ 지오북/ 2012년/ 248쪽)

人文學을 찾아서



환경계획학과 김형국 명예교수는 글, 책, 그림,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인문적 소양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인문학 독본인 『**人文學을 찾아서**』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일반인들의 인문적 소양 쌓기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해법을 제시함은 물론, 특히 인문학을 인문학 전공자들의 것으로만 인식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 그리고 정부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인문적 소양과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요령 있게 전달하고 있다. 흔히 인문학이라 하면 그 근간을 '문사철(文史哲)' 즉 문학·역사·철학에 대한 소양을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여기에 '예(藝)' 한 가지를 더해 '문사철예(文史哲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술·감성·고양'을 '문사철'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 이를 '학예일치(學藝一致)'라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인문적 소양이란?', '글쓰기에 관하여'의 두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문적 소양이란?'에서는 인문적 소양이란 무엇을 말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인문 교육과 우리 문화 예술, 고전의 지혜,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리고 인문학을 통한 다른 세상 바라보기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문체로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글쓰기에 관하여'에서는 글쓰기의 패턴과 양상에서부터 글쓰기의 순서, 시작과 끝맺음, 우리말의 특성, 시제, 단락 나누기, 퇴고 등 실제 글쓰기에 도움이 될 여러 노하우를 요령 있게 기술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http://youlhwadang.co.kr/book/3920/> 인용>

(인문학을 찾아서/ 김형국 지음/ 열화당/ 2013년/ 140쪽)



강과 한국인의 삶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과 『강과 한국인의 삶』을 공편하였다. 전상인 교수가 집필한 “강 그리고 도시의 삶과 문화”는 강의 역사와 기능을 인간의 삶과 도시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강은 인류와 역사의 기본 조건이며, 특히 도시의 발전을 추동하는 문명의 보고로 이해되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는 강의 재발견과 재탄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에 대한 도시계획학적 접근과 도시사회학적 사유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강과 한국인의 삶/ 전상인·박양호 공편/ 나남/ 2012년/ 724쪽)



박태준 사상, 미래를 열다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는 『박태준사상, 미래를 열다』를 공저하면서 “박태준 영웅론: 제철입국의 근대 정치사상”을 수록하였다. 포항제철 회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청암 박태준을 비교영웅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다음, 청암의 정치사상 핵심은 제철국가(steel-producing nation)를 근대 국가건설(state-making)의 본질로 이해한 데 있다고 보았다.

(박태준사상, 미래를 열다/ 송복, 전상인 외 공저/ 아시아/ 2012년/ 448쪽)



한국사회의 문화풍경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는 『한국사회의 문화풍경』을 공저하면서 “편의점으로 읽는 도시인의 삶과 문화”를 실었다. 이 글은 편의점을 알면 우리 사회가 읽히고 우리 시대가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쓰여진 ‘편의점 사회학’으로서, 김애란의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방법론적 길잡이로 삼았다. 언제부터인가 편의점이 우리 주변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 다음, 소비주의, 사회의 맥도널드화, 세계화, 도시인프라, 양극화의 시각에서 편의점을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문화풍경/ 이수안, 전상인 외 공저/ 그린/ 2013년/ 298쪽)



한국현대사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는 『한국현대사』를 최근 공저하였다. “공간과 일상의 한국현대사”라는 글을 통해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현대사를 공간 속에 구현되는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간의 눈으로 역사 읽기를 시도한 이 논문에서는 근대국가라는 정치적 공간의 형성, 산업화 이후 도시공간의 확산, 그리고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공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현대사를 분석하였다.

(한국현대사/ 차하순, 전상인 외 공저/ 세종연구원/ 2013년/ 365쪽)

석·박사과정

2012학년도 전기 졸업



2012년도 전기 졸업식이 2월 26일(화) 거행되어, 박사 12명, 석사 50명이 배출되었다. 환경계획학과의 도시및지역계획전공 15명, 교통관리전공 11명, 환경관리 전공 10명에게는 도시계획학 석사학위가 수여되었으며, 환경조경학과 14명에게는 조경학 석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우수논문으로는 교통관리 전공 김재경의 “철도산업의 수직분리와 비용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7개 고속철도 보유국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전공 강범서의 “손실분포법을 이용한 국내기상재해의 최대피해가능 금액 추정연구-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김고운의 “동아시아 중학교 교과서 속의 에너지 담론-사회과 및 과학과의 에너지 관련 내용에 대한 비판담론분석,” 환경조경학과 하명은의 “한국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간변화특성과 생활공간에의 영향-문당리 마을을 사례로”가 선정되었다. 박사학위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박성식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및지역계획전공)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보증금 전환구조 (지도교수 최막중)

조희선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및지역계획전공) The effects of compact urban development on air pollution (지도교수 최막중)

이용경 도시계획학 박사 (환경관리전공) 산림성 조류의 도시내 번식이동 연결망 특성-랜덤워크 모형의 개발과 적용 (지도교수 이도원)

유향란 도시계획학 박사 (환경관리전공)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 입법과정의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입장분석 (지도교수 윤순진)

김승윤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사쿠테이키(作庭記) 연구-동아시아적 작정원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성중상)

박종준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참여적 계획을 위한 집합적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종화)

김태연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한국 조경수목의 규격세분화와 품질평가 기준 (지도교수 김성균)

김승주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도시 조직에 따른 서울시 구릉지 경관의 특성과 영향 요소 (지도교수 임승빈)

이정원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지도교수 임승빈)

권윤구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혼합연구방법을 통한 인사동과 대학로 연구 (지도교수 임승빈)

허윤선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어린이 공간환경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지도교수 임승빈)

황기현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본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천 (지도교수 김성균)

2013학년도 전기 입학



높은 경쟁률을 보인 2013학년도 전기 입시의 합격자 발표(11월 30일)에서 박사과정 22명, 석사과정 58명에게 합격이 통보되었다. 환경계획학과의 경우 박사과정 13명(도시및지역계획 전공 7명, 교통관리 전공 2명, 환경관리 전공 4명), 석사과정 38명(도시및지역계획 전공 19명, 교통관리 전공 6명, 환경관리 전공 13명)이 합격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에는 9명이 합격하였으며,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에는 총 20명이 합격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계획학과는 2월 20일(수) 82동 103호에서 학과교수 및 조교, 신입생, 재학생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대학원 소개, 학사안내, 대학원 생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 박사신입생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생활을 안내받았으며, 석사신입생은 5조로 나누어 자기소개와 앞으로의 학업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3부에서는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교수, 조교, 신입생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조경학과는 2월 21일(목) 82동 402호에서 신입생 18명을 대상으로 2013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앞으로의 대학원 소개, 학사일정 안내,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학과장님과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학업계획과 수강과목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동계워크숍을 통해 이미 친목을 다진 신입생들의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환경조경학과 동계 워크숍

환경조경학과는 2월 14일(목)과 15일(금),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계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학과 교수 및 조교, 신입생,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43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인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직소폭포, 내소사, 선운사, 미당시문학관, 돌음별마을 등을 답사하였다.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및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관광지의 요건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을 4시간가량 등반하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날 저녁은 Green Urbanism을 주제로 신입생들의 도시와 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둘째 날에는 선운사 동백꽃 군락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문학관, 서정주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모티브로 한 벽화마을을 돌아보는 등 조경공간과 예술이 어우러진 답사지를 탐방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

3월 4일 입학식에서 재학생에 대한 2013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환경대학원에는 크게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 등 총 다섯 종류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 이번 1학기에는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3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김다혜(석사 2학기)**학생과 환경조경학과 **임현준(석사 3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미라보 장학금은 김병린 명예동창회장의 배려로 미라보건설에서 1993년도에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기탁해 주신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계획학과 **남궁옥(박사 2학기)**학생이 선정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과 학생회장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계획학과 **이다예(석사 2학기)**, **정문학(석사 3학기)**, **강지숙(석사 2학기)**, 환경조경학과 **조미진(석사 2학기)**, **안태홍(학생회장)** 학생이 선정되었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 전달하는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역시, 환경계획학과 **유혜림(석사 2학기)**, **장혜림(석사 4학기)**, 환경조경학과 **김지아(석사 4학기)**학생에게 전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통관리 전공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교통전공 **박남준(석사 2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수여자를 선정하였는데, 환경관리전공 **김고운(박사 1학기)**, **김신영(석사 4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청송 장학금과 **구재서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인 하늘마당을 관리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각각 환경조경학과 **박상현(석사 1학기)**과 협동과정 조경학 **조혜령(박사 3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신년하례식



환경대학원은 1월 2일(수) 교수회관에서 2013년 계사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명예교수, 교수, 직원,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이도원 원장의 새해맞이 축시낭독으로 시작된 신년사에 이어 학생회장인 안태홍군의 신년인사가 있었다. 신년덕담을 해주신 김안제, 양병이 명예교수는 올해가 다산, 재물, 풍요,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인만큼 다복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참가한 모든 환경대학원 구성원은 새해를 맞이하여 떡국을 나누며, 김기호 명예교수의 제의로 건배하고 교수-학생 간 인사를 통해 활기찬 2013년 새해를 다짐하였다.

학생회장 선출

2011년 9월 학생들의 자발적 선거를 통해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안태홍 학생이 선출되었다. 안태홍 학생회장의 인사 말을 싣는다.



<학생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2-13년 학생회장 환경조경전공 석사과정 안태홍입니다.
환경대학원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고 이런 뜻 깊은 해에 뉴스레터에 글을 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9월 14일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하에 동년 9월 24일~28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권자 192명 중 108명(52.76%)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찬성 107표, 반대 1표를 받아 동년 28일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장선거에 출마하며 내걸었던 공약은 여학우 전용 휴게실 조성, 휴게공간 환경개선, 지속적인 행사개최 등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모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 휴게실에 관련된 공약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조속히 공약을 실천하고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학생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학생회 행사는 환경대학원의 환경보호와 나눔의 실천을 위해서 교수님들과 학생이 함께한 '마나바다 행사'와 '일일 카페', 환경대학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과점퍼를 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휴게 체육대회와 40주년 식목행사, 스승의 날 행사가 준비되어있고 그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별의 해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학생회장이 되어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대학원의 교수님, 교직원, 학생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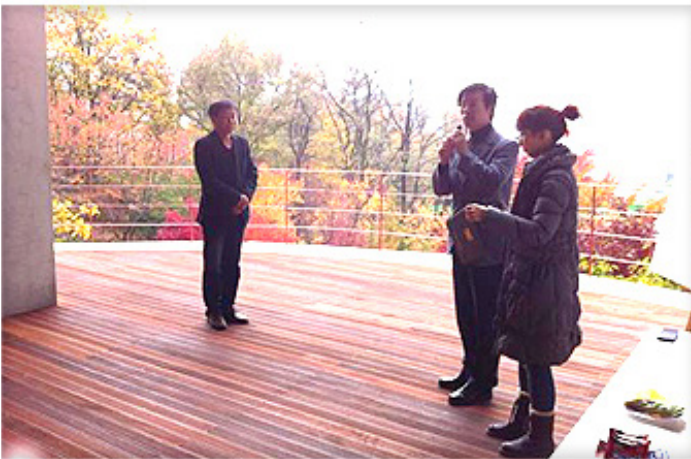
학생회 기금마련 행사



2012년 '환경대학원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행사'와 '일일 카페'가 11월 19일~23일 학생회 주관으로 3층 현관에서 진행되었다. '아나바다' 행사는 환경대학원의 환경 사랑 실천을 위한 행사로, 모든 물품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기부로 모아졌다. 대학원 내의 교수님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애장품들을 기증해 주셔서 책, 전자기기,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등 약 60점이 모아지고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가방이나 교과서등 일부 인기 있는 품목들은 행사시작 첫날에 모두 판매되는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나바다와 함께 진행된 '일일 카페' 행사는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행사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빵과 머핀, 커피, 유자차, 코코아, 녹차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루 80잔 이상의 음료가 판매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환경대학원 내에 이 같은 카페가 입점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5일간의 행사를 통해서 총 630,6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2013년도 학생회 행사를 위해서 쓰일 예정이다.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의 환경사랑을 실천한 뜻 깊은 행사였다.

82동 옥외휴게공간 "놀마루" 조성



지난해 11월 7일,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담소 및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2층 휴게 공간(1층 현관 상부)의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오프닝 행사는 이도원 원장과 성종상 부원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 2층 휴게 공간 명칭 투표로 이어졌다. 2층 휴게 공간 명칭은 오프닝행사 전 1주일간 공모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중에 즉석 투표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노을이 지는 마루,' '놀 수 있는 마루'라는 뜻의 '놀마루'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으며 세세한 마감 부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준 시공사 대표에게 감사장 수여의 자리도 있었다. 특히 환경조경학과와 환경계획학과 학생들이 직접 춤과 노래로 축하공연을 선보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층 휴게실 '놀마루'는 환경조경학과 소진, 이윤주 학생이 직접 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담소 및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SGS 29기 출범식

지난해 9월 12일(수),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29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29기에는 28명의 펠로우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영성 주임교수, 최명철 공동주임교수, 김경민 부주임교수가 함께 이끌고 있다.

2013년 4월 4일에 수료예정이며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형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노상(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부사장), 김종석(공군기상단 단장), 김준호(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 김진학(동흥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희덕(한국조경건설 부사장),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박진식(Centios 대표이사), 박태홍(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백승진(홈플러스 총괄이사), 송기태(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총재), 신영화(장원조경 상무이사), 양주호(선라이즈케미칼 대표이사), 양희범(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본부장), 원종호(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유영록(김포시청 시장), 유준호(에이그룹인터내셔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윤종선(전,대명도시개발 감사), 이민래(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국장), 이상현(코스모전기 대표이사), 이종우(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준혁(유한킴벌리 상무), 임형남(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대표), 정창수(월드그린환경연합 호남본부 사무처장), 조용호(DmTC 사장), 조은혜(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이사), 한기준(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과장), 황영심(지오북 대표)

29기 국내시찰

행정중심복합도시

29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9월 22일(토)과 23일(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계룡산을 다녀왔다. 29기 펠로우와 주임, 부주임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시·환경 분야의 최근 사례에 대한 시찰을 통해, Fellow들의 도시·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발전적 대안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은평뉴타운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지난해부터 주 1회로 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부족해진 친교시간을 보충하고, 좀 더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3회의 주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20일(토)에 은평뉴타운 답사 및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기회를 가졌다. 은평뉴타운 답사는 최명철 공동주임교수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최교수는 은평뉴타운사업의 시작부터 1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MA(Master Architect)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의도와 설계내용을 설명하였고, 현장을 보면서 실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주었다.



29기 해외시찰



29기 과정에서는 1월 24일(목)부터 28일(월)까지, "말라카해협을 둘러싼 흥망성쇠"라는 주제로, 3박 5일간 말라카, 페낭 조지타운,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시찰을 통해 찬란했던 근대 식민시대 무역의 역사를 접고 현대국가 말레이시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말라카와 조지타운, 세계 물류 중심에서 지식경제 허브로, 그리고 다시 종합리조트 전략으로 신생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대약진과 변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막중 교수와 이영성 주임교수, 최명철 공동주임교수, 29기 이상헌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펠로우가 함께하였다. 특별히 이번 시찰에는 선배펠로우인 이정우, 원성연 펠로우(20기)와 백승기 펠로우(28기)도 함께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특별강연



지난해 10월 11일(목),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수료한 선배 펠로우들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을 모시고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수도,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주제로 수원시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수원시의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얻어진 값진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17기 펠로우이기도 한 염시장의 특별강연에는 이도원 원장과 조백일 SGS동창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펠로우 분들이 함께하였다.

동문소식

7

동창회

총동창회 등반대회



환경대학원 총동창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행사와 함께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에 개최된 등반대회는 이도원 대학원장, 성종상 부원장을 비롯하여 동문 및 가족을 포함한 40여명이 참가했다. 오전에 교내탐방 및 관악산 등반을 한 뒤 버들골 잔디밭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며 모교 재학생과 동문들의 공연과 함께 경품 추첨을 한 후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서울환경포럼 정책 토론회



지난해 10월 26일, 환경관리 동문이 주축인 서울환경포럼(회장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 주관으로 환경정책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기후변화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18대 대선 후보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환경특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 안철수 후보의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등이 후보들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패널 및 방청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겨레 2012년 10월 29일자 기사를 인용하여 행사 내용을 요약한다.

「윤성규 단장은 “박 후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크다”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정밀 검토를 거쳐서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쪽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이미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의 관계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복권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다만 안 후보 측은 녹색성장을 비판하면서도 “성과가 있으면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태도여서 문 후보 쪽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쪽과 안 후보 측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 후보 캠프에서 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하는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4대강 복원위원회 구성과 사업 추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거론했다. 반면 안 후보의 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하는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혹시 어디 좋아진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설치된 보가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안 후보 측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원전 신규 건설은 문 후보 쪽과 마찬가지로 중단하겠다고면서도, 전력수급 불안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특별히 강조했다. 세 후보 진영이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리스트를 살펴보면, 안 후보 측은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안전한 에너지’를 7번째에, 문 후보 측은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보전’을 10번째에 넣어 놓았다. 반면 박 후보 측은 10대 공약 리스트에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후보 쪽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박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캠프에 환경특보를 둔 것에서 후보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나타난다”며 “공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후보에게 보고도 안 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에너지분야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로는 처음으로 개최되어 학계는 물론 정·재계, 시민사회 등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이 토론회에서 환경과 에너지분야에서 활약 중인 우리 동문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전의찬 서울환경포럼 회장(세종대 대학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정전 명예교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정희성 동문(환경과 문명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고재경 동문(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종관 동문(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 조경두 동문(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순진 교수(환경대학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발표자 중 문재인 캠프의 김좌관 교수(부산가톨릭대)도 동문이다. 이 행사는 한겨레 등 일간지를 비롯하여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에 널리 보도되어 상대적으로 흠대받는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일조하였다.

환경포럼 신년하례회

2013년 1월 12일 서울대학교 소담마루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및 서울환경포럼 신년 하례회가 열렸다. 전의찬(세종대학교 교수) 회장을 비롯한 서울환경포럼 회원 13명, 환경 대학원 김정욱, 이정전 명예교수와 환경관리 교수진 4명, 석·박사 졸업 예정자 7명, 환경관리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하여 총 65명이 참석 하였다.

서울환경포럼 전의찬 회장의 개회사로 신년하례회가 시작되었고, 환경대학원장 이도원 교수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조경두 총무의 진행 하에 2012년 서울환경포럼 운영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 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학술세미나와 서울시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관한 월례포럼, 관악산 등반대회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18대 대선후보들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뒤이어 이도원 교수의 "전통생태와 풍수지리"에 관한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신년하례회에서는 환경관리 석·박사 졸업예정자의 논문 총 7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은 "산림성 조류의 도시 내 번식이동 연결망 특성-랜덤워크 모형의 개발과 적용" 이용경(박사과정), "스마트그리드산업의 지역고용유발효과 분석" 성진영(석사과정), "Analysis of Spatial and Temporal Gross Primary Productivity and Evapotranspiration in Korea by using BESS" 전수현(석사과정),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분석" 이화연(석사과정), "Analysis of vertical forest structure in Siheung with vegetation indices derived from LiDAR data" 조선(석사과정), "국내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요인분석" 이유나(석사과정),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Energy-related Contents in National Textbooks of China, Japan, and Korea" 김고운(석사과정) 순 소개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서울환경포럼 신입회원 기념패 증정이 있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환경대학원과 서울환경포럼의 활동을 정리하고, 석·박사 졸업 예정자들의 연구 성과와 졸업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였다. 또한 환경대학원 교수, 졸업생과 재학생들 간 친분을 쌓으며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다.

고위정책과정 동창회 제3회 장학후원 골프대회



SGS동창회(회장 조백일)는 지난해 11월 14일(수) 강원도 춘천 오너스골프클럽에서 제3회 장학후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창회원 70여 명이 참여하여 회원간 친목도모와 함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회 단체우승은 29기(김진학, 김희덕, 양주호, 유준호)가 차지했고, 김대현(24기)펠로우는 개인전 메달리스트가 되었으며, 8명의 펠로우가 참여한 20기와 24기는 최다참여기수상을 공동수상하였다.

고위정책과정 이완영 의원 특별강연, SGS동창회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SGS동창회는 지난해 12월 6일(목)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1층 본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우리 대학원을 졸업한 이완영 국회의원의 특별강연과 재능나눔을 통해 사회 참여를 실천하고 있는 음악인들의 모임인 'HUG WORLD'의 축하 공연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원 환경대학원장과 교수들, 조백일 SGS동창회장과 펠로우 등 80여명이 참여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함께한 노력에 서로 감사하며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에도 계속적인 단합과 발전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조회장은 지난 장학 후원 골프대회에서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원홍순 장학위원장(15기)을 비롯한 40여 명의 펠로우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탁증서를 전달하였고, 최병진(20기) 펠로우에게 동창회의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Good Fellow' 상을 수여하였다.

환경대학원 옥상정원 차양막 설치를 위한 발전기금 후원

서울환경포럼에서는 지난해 9월 전의찬 회장(계획 18회, 동창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환경대학원 옥상정원 파고라의 차양막 설치를 위한 발전기금을 후원하였다. 뜻 깊은 후원을 통해 본원의 옥상정원은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관악산의 풍치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더욱 빈번히 활용될 것이다. 디자인 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차양막은 3월중에 시공예정이다.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환경계획학과

- **주윤식**(계획 5회) 동문은 2013년 3월 1일 버츰얼커뮤니티인 "이동네사람들" (<http://edongne.kr>)을 개설했다. 근린주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주문화를 일구어 갈 참살이 SNS이다. 이웃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어르신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과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젊은이, 귀엽고 총명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서로가 소통하며 힘이 되면 얼마나 큰 사회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주윤식 동문은 "이동네사람들"로 더불어 새로운 정주문화운동을 전개하려 한다.
- **이강건**(계획 9회) (주)선진엔지니어링 도시단지부문 사장은 지난 11월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열린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창립총회에서 기술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이민부**(계획 11회)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2012년 4월부터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인문사회계)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난해 5월에는 교양서 『이민부의 세상을 담은 지리교실』을 출간하였다 (2012. 9. 15. 발행 뉴스레터 9호 참조).
- **배준구**(계획 12회)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2013년 1월 11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근무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부터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 **윤대식**(계획 14회) 영남대학교 교수는 2013년 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박찬홍**(계획 16회) 동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본부장에서 건설기술본부장으로 이동하였다.
- **전상훈**(계획 16회) 동문은 2013년 3월 1일자로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 **조덕호**(계획 17회)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행정대학원 협의회 회장으로 내정 되었다.
- **전의찬**(계획 18회, 계획박사 6회, 환경대학원 동창회부회장) 세종대학교 대학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및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 **김명수**(계획 19회)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2013년 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유현석**(계획 19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계획 20회** 동기들은 지난 12월 20일에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87학년도 석사과정 동기모임을 하였다. 본 모임은 회장 이상대, 총무 이석호를 중심으로 분기 마다 모여 세상사 얘기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 **신상영**(계획 21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정희진**(계획 22회) KOICA 부장은 2월 중순에 여수박람회 관련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월말에는 모로코로 전임한다.
- **송동하**(계획 24회, 계획박사 11회)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이앤에이치씨(주)가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에서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336-34 정풍빌딩 1층으로 이전하였다.

- 이정환(계획 28회) 국회 김성근의원 특별보좌관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보고서 출간회와 평가토론회'를 진행하였다. 11월 26일부터 12월 7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COP18에 정부대표 단으로 등록 참가하였다.
- 김영우(계획 30회) 동문은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 환경협력과장으로 자카르타에 파견 나와 있다.
- 이태동(계획 34회) 홍콩대학교 교수는 올해 초 "Global Cities and Transnational Climate Change Networks"라는 논문을 SSCI 저널인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 (1): 108-127에 게재하였다.
- 최이규 (계획 34회) 그룹한 조경(대표 박명권, 고위과정 12기) 뉴욕지사 디렉터는 캐나다 워니펙시의 제4회 워밍허츠 국제디자인공모전에 아시아 설계자로는 첫 참가하여 당선되었다. 세계 최장 스케이트코스인 아시니보인 강변공원에 방문자센터를 설계 시공하여 1월말 개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28일 캐나다 워니펙시의 마니토바대학에서 강연 하였다.
- 여혜진(계획박사 19회) 동문은 2012년 5월 서울연구원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이동하였다.
- 유헌란(계획박사 22회) 동문은 2012년 5월 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해안대도시 기후변화적응전략비교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6월에는 연세대학교 여성고위 지도자과정 총장정근상을 수상하였다. 11월에는 한국중국문화학회에서 개최한 "18차 당대회와 중국"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남서울대학교 중국어말하기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9월~12월에는 남서울대학교 교육개발 센터에서 지원한 "수업개선 프로그램"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중수교20주년 기념 중한가요대회에서 한국어 MC를 맡아 진행을 하였으며, 서울시 서초구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총무도 맡았다. 2013년에는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신년하례회에 중국대사 및 협회 회장의 초대를 받고 참석하였으며, 2월에는 환경대학원에서 논문 "중국재생가능에너지법 입법과정의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입장분석"으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환경조경학과

- 안동만(조경 6회) 서울대 농생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3일~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세계조경가연합회(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총회에 Sir Geoffrey Jellicoe Award 후보자 선정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 11월 6일~7일에는 말레이시아 조경협회(ILAM: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Malaysia) 초청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조경교육인증제 워크숍에 참석하고, UITM 조경학과에서 한국 조경발전에 대해 특강하였다.
- 김한배(조경 12회) 동문은 2013년 1월 1일부로 제 21대 한국조경학회장과 제6대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 오병태(조경 13회) 호남대학교 교수는 2013년 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김현선(조경 14회)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는 2013년 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박인성(조경 16회) 동문은 2004년 9월 학기부터 지난 학기까지는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소재한 절강대학(浙江大學) 토지관리학과에 근무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동 대학 내 학과 소속이 토지관리학과에서 도시관리학과로 바뀌었다.
- 박재철(조경 16회)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는 녹색인프라 정책연구와 생태복원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12월 27일 '한국조경 40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 김선미(조경 17회) 동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디자인처장에서 녹색경관처장으로 이동하였다.
- 김민근(조경 18회) 롯데자산개발 상무는 중국 청두(成都)에 복합개발을 위한 토지를 중국 정부로부터 낙찰 받아 토지비를 납부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부지 규모는 2만 1천 평이며, 개발하는 시설은 백화점, 할인점, 호텔, 오피스, 시네마 그리고 아파트 등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 조성학(조경 19회) 동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디자인처장으로 승진하였다.
- 전우석(조경 25회) 우석건축사사무소장(전남도립대 한옥문화산업과 겸임교수)은 한옥의 창조적 계승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연구소가 주관한 2012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한옥펜션 '두가현'으로 건축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을 수상했다. 곡성 섬진강변에 위치한 '두가현'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도심에서 찾을 수 없는 시골 여유 이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한옥 건물에 펜션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시상식은 2012년 12월 28일 서울 한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 금기용(조경 26회) 서울연구원(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서 발간되는 저명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3년 30주년 Pearl Edition에 등재되었다.
- 최강림(조경 24회,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11회) 경성대학교 교수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방글라데시(Bangladesh)의 수도 다카(Dhaka)에서 개최된 '제24회 세계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24th Asia-Pacific Regional Scout Conference, World Organization of Scouting Movement)에서 3년 임기의 '스카우팅 프로파일 분과위원'(Member of the Scouting Profile Sub Committee)에 선임되었다.
- 박상준(조경 26회)동문은 석사 졸업 후에 '코오롱글로벌', '안진회계법인', '리얼티랩' 등의 회사에서 주로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의 '주택사업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의 주택사업블록은 주택, 준 주택을 포함하여 총 10개 블록 19개 동으로 '아드리아 스미스', '쿵 힘멜브라우', '헬무트 안', '다니엘 리베스킨트', '마사 슈워츠' 등 저명한 건축가와 조경가가 Schematic Design을 하였다.
- 문지영(조경 34회,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17회) 동문은 대한토목학회지 편집위원으로서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공로로 2012년 12월 31일 대한토목학회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단행본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을 2012년 12월에 출간하였다.
- 권영상(조경 35회)동문은 현재 University of Delaware에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로 재직하고 있다.
- 김재근(조경 36회)동문은 지난해 한국광해관리공단(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 기획조정실로 인사이동 하였다.
- 이초원(조경 41회)동문은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9월부터 (주)휴플래닝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 **김광두**(도시환경최고위과정 3기)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겸임교수는 2012년 12월 31일부로 (주)대정골프엔지니어링 회장직을 사임하고, 2013년 1월 1일 (주)원화조경 고문으로 취임하였다.
- **전두환**(도시환경최고위과정 3기) 펠로우는 2012년 9월 10일 수산물 무역업(꽂치, 고등어, 오징어 등)을 하는 회사인 원산산업(주)을 개업하였다.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761 번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614호)
- **이병렬**(도시환경최고위과정 5기)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2년 동안 북한 방문, 독일 탐방, 미국과 남북아메리카 대륙 탐방 경험과 전북 고향에 대한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통찰력을 담은 칼럼집 『미르의 산책』을 간행했다. 이순(耳順)을 맞는 이 교수는 2012년 12월 12일 오후 6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책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 **형난옥**(도시환경최고위과정 9기) 펠로우는 2012년 8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운영본부장에서 (주)유아림 대표이사겸 월간유아 발행인으로 전임하였다. (주)유아림은 박람회 개최, 유통, 교육, 잡지 발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0-50 청운빌딩)
- **조성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13기) 펠로우는 지난 1월11일, 서울시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녹색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녹색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녹색산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였다. 현재 63개 녹색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 **이종호**(도시환경최고위과정 16기) 펠로우는 2012년도에 심리교과서, 심리의 힘, 시원한 대답, 심리전문가의 문제풀이, 오만가지심리와 열두제자 등을 다수의 심리치료 관련 서적을 출간하였으며, 2012년 12월 28일에는 한국디지털도서관에서 수여하는 심리치유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사회심리치료센터 원장인 이종호 펠로우는 2013년 2월 1일 센터의 이전 소식도 함께 전해왔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A동 419 홀. 전화: 02) 3392- 3939)
- **박용래**(도시환경최고위과정 21기) 펠로우는 2012년 6월 노원구 부구청장을 퇴직하고 환경설비제품 관련 기업인 한기실업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 **황길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2기) 명소MC 대표이사는 2012년에 슬로시티 청산도에 문화를 입히고 슬로길에 이야기를 더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구 모명재길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더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 **김동호**(도시환경최고위과정 24기) 펠로우는 10월 22일자로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국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 **유종국**(도시환경최고위과정 24기) 솔로몬산업(주) 대표이사는 서울대총동문회이사, 새누리당 부대변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서울후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속초시민회장으로 취임했다.
- **임형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4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는 맡고 있던 해외사업실이 2012년 11월 1일부로 해외사업본부로 승격함에 따라, 해외사업실장에서 본부장으로 직책변경과 함께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진급하였다. 또한 지난 2년간 추진하였던 "Iraq Bismayah new city project"가 한화건설-이라크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회사의 용역 또한 체결되어 해외사업본부장과 겸임으로 Iraq Bncp 합동설계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임무 수행중이다.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5기 자치회**는 2012년 12월 5일 울돌목에서 총회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김종일** 펠로우를 기획 장으로 선출하였다. 김종일 펠로우는 친환경 LED조명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봉사과 시민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6기 자치회는 이강제 회장(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은종환 펠로우(에코시안 대표이사)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 정규백(도시환경최고위과정 26기) 펠로우는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 최성진(도시환경최고위과정 26기) 펠로우는 경기도시공사 팀장에서 처장(판매관리처)으로 승진하였다.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자치회는 2012년 정기총회에서 김진후 회장(화인에프에스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조영규 펠로우(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추대하였다고 전해왔다.
- 김진학(도시환경최고위과정 29기) 펠로우는 2012년 9월 25일에 한국국제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 15일에는 광명소방서 청사 준공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동문출간

한국주거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하성규(계획 10회)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7명의 전문가들과 공저로 『**한국 주거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이야말로 주택정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일깨워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대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이 주거 빈곤 상태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하여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거 빈곤을 극복해 나가는 주거복지의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주거복지정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거복지의 이론적 논의,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사례,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정책의 평가 및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주택정책의 핵심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로서 우리나라의 주거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방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교과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국토계획 제47권 제5호 2012. 10, 231-232 /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 서평인용>

(한국주거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하성규 외 지음/ 박영사/ 2012년/ 505쪽)



환경 커뮤니케이션

김찬국(계획 30회) 한국고원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2013년 1월 Robert Cox의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Sphere』를 번역하여 『환경 커뮤니케이션』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다. 환경교육을 공부하는 김남수, 황세영 박사와 함께 번역한 이 책은 환경의사결정, 환경갈등의 조정, 환경캠페인, 기후정의운동, 녹색마케팅 등 다양한 환경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방식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김찬국 외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년/ 538쪽)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문지영(조경 34회,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17회) 동문은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을 2012년 12월에 출간하였다. 저자는 2003년 석사졸업 후, ㈜유신 구조부에 입사하여 현대와 미래의 교량경관 설계 실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교량, 특히 한국의 옛 교량에 대한 뿌리를 모르고 현재와 미래의 그것을 운운한다는 것이, 근본을 모르고 수박의 겉을 핥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기원(지도교수), 조경진(심사위원장), 조정송(부심사위원장), 이유직(심사위원), 김현선(심사위원) 교수님의 지도하에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 연결, 교감, 통진(2012년 2월)”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후 단행본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책에서는 교량을 단순한 통과·이동의 수단으로서만 다루지 않았다. 교량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원시자연에 인공의 요소가 가미된 개념인 ‘문화’의 속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으며, 환경 가운데 시각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경관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듯 교량은 교량 그 이상이다. 이 책에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경관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조선시대의 교량’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을 기술하였다.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문지영 지음/ 씨아이알/ 2012년/ 3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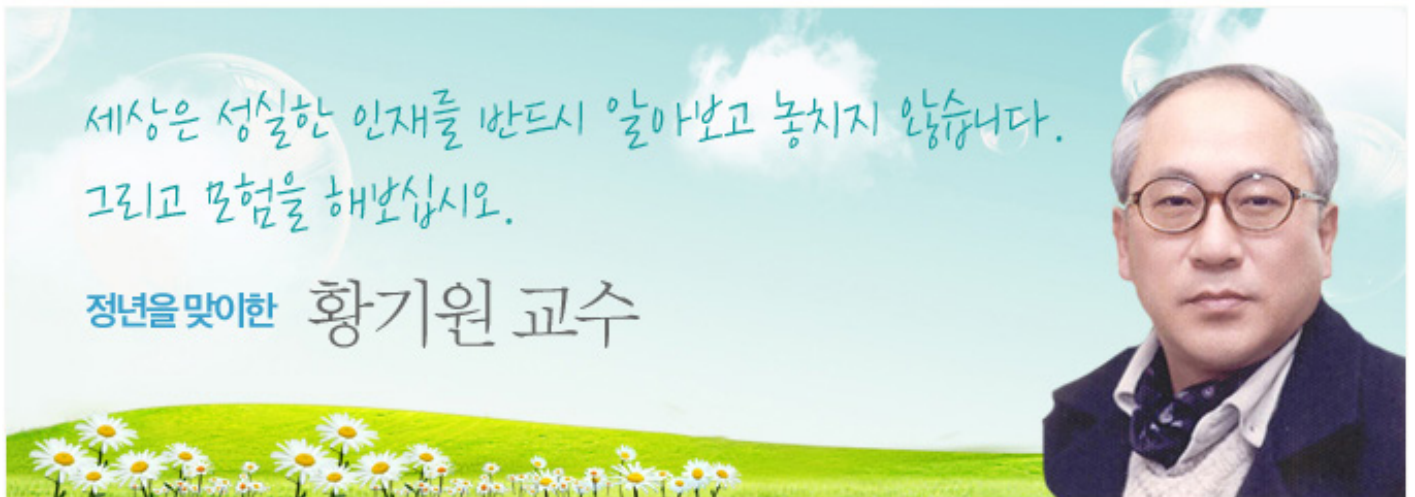
미르의 산책

이병렬(도시환경최고위과정 5기)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2년 동안 북한 방문, 독일 탐방, 미국과 남북아메리카 대륙 탐방 경험과 전북 고향에 대한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통찰력을 담은 칼럼집 『미르의 산책』을 간행했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유럽, 미국과 남미, 북한을 탐방하고 우리 전북지역과 한민족의 자화상과 정체성을 생각해본 울림을 피력했다”며 “분주하게 겪어왔던 60년 인생을 두드림과 어울림으로 이 책을 통해 함께함으로써 비전과 내일이 더 높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미르의 산책』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무궁화 △다물정신으로 내일을 향한 도약 △연구대상 지역과 혁신 △우리가 바라는 새만금시대 △전북 발전의 꿈은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푸르른 정치문화를 위한 큰 울림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미르의 산책/ 이병렬 지음/ 조이앙스/ 2012년/ 315쪽)

인터뷰

11



Q1. 환경대학원 졸업생이시면서, 약 32년간을 모교 교수로서 봉직하셨기에 우리 대학원에 대한 애착이 더욱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를 졸업하시고 환경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와 학생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원래 도시설계에 관심이 많은 건축학도였습니다. 1973년 군대 제대 후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신문에서 환경대학원이 설립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도시계획학과에 가면 도시설계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덜컥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학과와 조경학과가 서로 활발하게 왕래하며 공부하던 시절이라 두루두루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조경 분야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겨난 시기에 새로 설립된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 모두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억이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환경전 전시회”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 행사였는데, 저와 운영태 교수가 팀장이었고, 전교생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어가며 준비했습니다.

Q2. '경관의 해석' 과목은 우리 학과 학생들과 타 학과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며, 2011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설계, 조경, 건축 등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 경관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관'이라는 말은 학계와 기술계에서 두루 쓰이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건축, 조경, 도시계획, 미술, 문화 등의 분야를 40년 넘게 공부하고 책을 출간했지만, 아직도 어렵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개념입니다.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이란 말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고, 각자의 분야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관을 보고 읽고 이용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 그 자체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영위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관을 보고 읽어내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락 맛보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안다'는 것과 '아름답다'라는 말은 서로 통합니다. 경관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비단 조경뿐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설계, 건축, 행정 등 경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3. 신행정수도, 독립기념관, 올림픽공원, 파리공원, 이효석 문화마을, 박경리 선생 기념공원 등의 주제공원 기본계획과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대전 엑스포, COEX, 서울대 캠퍼스 등의 기본계획과 설계에 참여하셨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특히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잊을 수 없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림픽공원> 설계입니다. 수많은 밤을 학교에서 보냈고 특히 학생들과의 팀 작업 과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때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학생들과 매우 친해졌고 끈끈한 정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업계의 든든한 중견이 되었지만 같이 작업했던 그 때의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유독 철야 작업이 많아서 다들 고생했는데, 두터운 스티로폼을 구해다가 관처럼 만들고 그 속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종종 올림픽공원에 산책을 가곤 하는데, 갈 때마다 그 때 그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하게 됩니다.

Q4. 1994년부터 국제기념물유적보존위원회(ICOMOS) 한국위원회 회원이시면서 부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국제기념물유적보존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스승이신 권태준 명예교수님의 적극적인 권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보람된 활동이었고, 조경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 국내·외 활동을 통해 보다 넓고 깊게 경관을 보는 눈을 얻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는데 기여했고,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었던 세계유산 개념을 대중화하는데 일조한 것도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우리나라의 도시와 환경 이슈에 대해 우리 대학원은 많은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환경대학원 교육과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던 무렵, 환경대학원이 생겨난 것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온 수많은 연구와 프로젝트, 학제간의 활발한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을 배출했으며, 이는 환경대학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6. 올해는 환경대학원이 설립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환경대학원의 교육 방향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973년에 환경대학원이 설립되었을 때의 취지와 정신을 기억하고, 일신 또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교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환경대학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능력과 전문 실무 기술의 습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를 조망하는 리더 양성은 사고에 깊이를 주는 인문학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교과 과정에서 인문·예술 분야를 보완하고, 나아가 교수진도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Q7. 교수님께서 건축·도시·조경을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환경설계 분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환경설계와 같은 통합적 설계를 위해 우리 분야나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함몰되지 않고 남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됩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정답이 없어 보이는 설계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숙고와 노력, 그리고 이를 다시 설계로 실현시키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이 사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인간을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을 접목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Q8. 한국 조경계의 원로로서 현재 조경학, 조경 산업 등 조경계의 현안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조경계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경의 특성상 최근 조경 산업계는 다소 어려운 시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건축과 도시설계, 조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집합화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는 조경의 정체성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40여 년간 발전해온 조경학계에서도 반성할 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와 영리를 좇기 보다는 진지한 내적 성찰과 연구에 힘을 쏟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산업이나 환경설계, 생태, 문화유산 등 다양한 학제간 교류가 필요한 영역, 도시설계와 계획, 조경이 통합된 새로운 영역에서 환경대학원이 크게 활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9. 좋은 교육을 받고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좁은 취업문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가 불투명해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자리는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외형적으로 화려한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왜 만들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볼길 바랍니다.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가 없어 속을 태우기도 합니다. 당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겠지만 끈기를 갖고 열심히 하면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 올 것이고, 세상은 성실한 인재를 반드시 알아보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해보십시오.

Q10. 마지막으로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 이후의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며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 있던 수많은 책들을 집으로 옮겨 놓고 보니 예전에 사두기만 했던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서가 꼭대기 구석에 숨어있던 고전들을 읽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중단했던 일본어와 프랑스어 공부도 다시 해볼까 합니다. 짬짬이 써 놓았던 원고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해서 몇 권의 책으로 엮으면 어떨까 합니다. 서가 정리가 끝나면 "동연정사(童硯精舍)"를 열어 제자들과 함께 세상일을 논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살이 되는 외손자랑 곧 태어날 친 손주랑 재미있게 놀고 싶기도 하고, 아내와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 탐방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운 일을 다 하기 위해 우선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며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Q1. 지난 2년간 환경대학원의 원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집어낼만한 업적이 없는 만큼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교수 생활에서 행정보다는 공부에서 내 삶의 승부를 걸고 싶었고, 그래서 보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려고 했지요. 원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논문 읽기와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국내외답사를 포함하는 활동을 그만큼 줄여야 했지요. 필요할 때 뜻밖에도 쉽지 않은 도움을 받았을 때는 무척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로 이용하고 싶답니다. 한편, 1년에 한 차례뿐이었지만 환경대학원 체육대회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이 격의 없이 어울리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특별하게 기억되는 듯해요. 앞으로도 그런 시간은 더욱 많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학생회와 차기 원장님에 대한 은근한 압력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Q2. 최근의 사회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에게 상당한 적응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대학원의 사명과 기능도 새로운 성찰이 요구된다고 보시는지요. 환경대학원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전체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시면서 환경대학원이 유념해야 한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요. 서울대학교 내 다른 대학들과 견주어 볼 때 환경대학원은 어떤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고,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걸맞은 환경대학원의 사명과 기능은 당연히 고민하고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환경대학원은 1970년대 설립된 이래로 학제적 또는 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종합과학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실천해왔느냐고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1968년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신설되었고 1970년대 초,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다음 드러난 절개지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아 조경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요. 그리하여 도시 및 지역 계획, 조경, 나아가 중공업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환경오염 문제를 다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것이 환경대학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안이 급박하여 학부과정부터 전문가를 양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2년 동안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주목적이었죠. 이러한 접근을 통해 초창기에 양성했던 분들은 환경대학원 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았고,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그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그 때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기존 다른 학과와 전공에서 차후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대학원 학제에서 포괄하고자 했던 학문분야를 다루고자 하는 현상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컨대, 1973년 환경대학원이 문을 열 때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와 국토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다양한 규모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 거듭 나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환경대학원을 구성하는 학과와 전공에 따라 환경대학원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면모는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모범적인 요소가 있지만 연구비를 포함하는 재정의 투명도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입니다.

Q3. 환경대학원은 도시, 지역, 교통, 환경, 조경, 도시설계 등 다양한 전공영역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제각기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고유의 지적 전통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공통의 사명으로 환경대학원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취임인사(환경대학원 뉴스레터 8호)에서 전공 간 협력과 소통을 중요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환경대학원은 잘하고 있는지요? 보다 더 할 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끔 "우리 대학원의 학과와 전공,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업적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을 갖춘 수준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또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돋보이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질문을 해봤지만 제가 부족하여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막연하게 환경대학원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자면 내부 구성원들, 특히 교수님들이 마음 편하게 만나고 학문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할 것으로 믿어요.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쉬워 후임 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은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에는 특히 까페와 같은 곳에서 만나는 자유스러운 소규모 모임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풍토를 낳는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그 주장에 진작부터 동의하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전제로 하는 엄숙한 모임 역시 중요합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이 반응을 일으켜 환경대학원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찾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요.

종합과학을 이야기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이를 추구해야 할 주체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또는 학생들이 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너무 오래 계속되어온 것 같습니다. 한편, 각 분야의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계획설계 과목이 아직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 과목에서 학생들이 공동과제를 수행할 때 특정 전공에 수업부담이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분야와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학업부담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가령 타 단과대의 석사과정에서는 필수 이수학점이 24학점인데 환경대학원의 학생들은 33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5 배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강의를 듣느라 바빠 독자적인 고민을 하고 교수님들과 반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학생들이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지금은 바쁜 학업 일정으로 세미나 또는 여타 과외활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Q4. 원장님은 환경대학원의 리더로서 바쁜 보직수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실을 돌보시고 지도학생들에게 활발한 학술활동을 독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술도 소홀히 하지 않으셔서 최근에는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책을 공저로 출간하셨습니다. 좋은 학자와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원장님의 학문관을 들려주세요. 전문대학원으로서 학문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고도 쉬운 물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몰두하는 접근은 어디서나 통한다고 봐요. 환경대학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종합과학도 먼저 어떤 학문영역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진 구성원을 만들 때 가능하다고 본답니다. 한 영역에 몰두하여 일가를 이룬 다음에는 남들과 함께 협업하는 일이 절실해지고, 또한 그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융합의 동반자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 사람들과 협업했을 때는 얻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늘 들어 다시 연구동반자로 반기기 어렵더군요. 따라서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영역에 몰두하여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부심"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한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때, 다른 영역을 돌아보고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다른 분야와 협업하고, 또 내 분야와 관련하여 타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석박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전문대학원에 대한 대담도 조심스럽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수학문과 실용(학문)을 구분할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고 봐요. 환경대학원이 1973년 설립될 당시에는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이제 많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학문적 영역과 실용적 영역 간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죠.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종합과학의 총체적 영역을 다루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요. 각 전공분야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무엇보다 적은 수의 교수진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에, 구성원들이 협동하여 고유의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하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Q5. 2년 전 원장에 취임하시면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루셨나요? 환경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환경대학원 구성원인 동문, 교수, 학생들은 각각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후임 원장을 비롯한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막연하지만 40년 동안 환경대학원이 강조한 종합과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환경대학원 구성원들과 공동연구를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요. 향후 환경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교수님들 사이의 협력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다른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에 앞서 교수님들이 솔선수범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종합과학을 다루는 학문분과의 특성상 환경대학원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미국의 환경 분야 교수진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에도 이르는데, 서울대학교 내 환경대학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짧게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물론 다른 사회에서 배우고 봉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바깥 일로 너무 바쁘지 말자. 대학원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더 늘리자.”

Q6. 다시 평교수로서 돌아오셨습니다. 미루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미루어놓았던 전통생태 영문 서적 집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원장 임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여 올해 자료를 더 보충하고, 학교가 허락하면 2014년 1학기 연구년을 얻어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 모집안내

환경대학원의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은 정부, 민간, 시민단체의 중견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시, 지역, 국토, 교통, 환경, 조경, 도시설계 분야의 지식, 정보, 기술 및 아이디어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과 실무에 있어서도 보다 다차원적이고 범지구적인 문제상황과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은 학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학습과 상호계몽 포럼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추천을 적극 존중하는 1차 특별전형이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변의 책임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회, 선배펠로우, 교수 추천을 통한 1차 특별전형 7월 12일(금) 18:00까지
- 2차 일반전형 8월 9일(금) 18:00까지
- 출범식 9월 12일 예정
- 지원자격 · 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자 및 임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계 인사
 -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 건축 및 조경설계 사무소 대표자 또는 임원
 - 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환경 엔지니어링 대표자 또는 임원
 - 건설회사 또는 개발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 부동산 금융 및 투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추천 및 자세한 문의

조 교 김 배

전 화 02-880-8525

이 메 일 sgs@snu.ac.kr

홈페이지 <http://gses.snu.ac.kr>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3년 3월 15일

담당교수 김광중 이유미 이희연 조경진

학과조교 문미라, 박주현, 원세형, 박윤미, 오관교

고위정책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손슬기, 허윤서

E-Design 흑석동작업장

출력물디자인 김현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